지역 메아리

부안해경, 야간 해양사고 대비 긴급 상황대응 훈련 실시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가 야간 해양사고 발생 시 대응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구조 역량을 강화하려고 불시에 실제와 같은 상황명령을 부여하여 비상소집 및 긴급 상황대응 훈련이 실시됐다.

지난 13일 오후 7시경 부안군 변산면 위도 북동방 4.5마일(8.3km) 해상에서 낚시어선 전복(顚覆)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이날 부안해경은 출동함정 뿐만 아니라 해경구조대, 변산파출소, 위도파출소까지 비상 출동해 사고 해점으로 전속 이동하여 익수자 및 환자를 구조하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실시됐다.

특히 부안해경은 인근 어선 등 통항선박에 구조 협조요청 및 상황대책팀을 만들어 매뉴얼에 따라 각 기능별 상황처리 사항을 점검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정기분 개별 · 공동 주택가격 열람 · 의견 접수

정읍시는 오는 15일부터 2018년 정기분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을 받는다.

기한은 내달 3일까지이다.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2만6037호와 공동주택 1만9749호이다.

열람 장소는 시청 세정과와 종합민원과(세무민원창구), 읍면동 세무민원 담당창구이다. 또 공동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dit.g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주택 평가 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열람 후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별주택 가격과 관련, "정읍지역 개별주택 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1427호의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에서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청과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공정한 재심사 과정을 거쳐 적정성을 재검토 후 그 결과를 우편으로 재통지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생태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고창군, 60억 투입 친환경 숙박단지 '에코촌' 조성

고창군국가생태관광지역이면서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역인 운곡람사르습지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체류형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친환경 숙박단지 '에코촌'을 조성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에코촌'은 아산면 용계리 일원에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건축면적 1034㎡(연면적 1390㎡)에 8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2층 규모로 건립된다.

친환경 숙박시설 6동(12객실)과 세미나실, 휴게실, 정보실 등을 갖춘 탐방지원센터, 문화공연장, 기타 관광객 편의시설 등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올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달 중에 공사를 발주 및 착공해 2019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청정한 자연생태를 만끽할 수 있는 운곡람사르습지는 2014년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해마다 탐방객이 늘어 지난해에는 2만3000여명이 찾았다.

이에 군은 탐방객들의 편의제공과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체험을 통해 전국을 대표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에코촌을 조성하고, 운곡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에 참여하는 습지주변 6개 마을을 비롯해 고인돌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한 생태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에코촌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관광명소를 연계한 체류형 생태관광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볼거리와 먹거리를 비롯해 편안한 쉼까지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자연생태관광의 거점을 조성하고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초등학력 인정 성인문해교육 운영

부안군 마실청춘학교 입학식

부안군 마실 청춘학교 입학식이 지난 12일 부안읍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됐다.

부안군 마실 청춘학교 입학식이 지난 12일 초등학력 인증반 및 초등학력 준비반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지역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읍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입학한 신입생 중 초등학력 인증반 11명의 어르신들은 올해 3단계 과정을 이수한 후 2019년 2월에 초등학교 학력을 취득하게 된다.

입학하신 어르신들의 76세로 이날 마실 청춘학교장(부안군수 김종규) 입학허가서를 대표로 받은 이인순 어르신은 87세 최고령자로 마실 청춘학교에 입학하였다.

올해 처음 개설된 부안군 마실 청춘학교는 부안군이 지난해 12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진행한 2018년도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를 통해 도내 초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신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게 되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실 청춘학교에서 즐겁고 행복한 배움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축하 인사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아직 관내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초등학교 교육을 마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군이 앞장서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4억2300만원 투입

정읍시가 올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4억2300만원을 투입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함으로써 상담과 치료, 역량 개발 기회 등을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다.

시는 올해 약 1000명의 저소득 노인과 아동, 청소년들에게 이용권을 발급해 모두 14개사업 44개 분야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일자리를 창출(44개 기관), 모두 1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한편 시는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난달 말까지 이용자를 모집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노인, 장애인 대상 사업은 140% 이내)이내이다.

해당 시민이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시에서는 소득 수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집행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유진섭 정읍시의회 의장, 시장 출마 선언

"명품 교육도시 정읍 건설"

더불어민주당 유진섭 정읍시의회 의장이 오는 6.13지방선거에 정읍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진섭 의장은 3월13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 사는 정읍, 품격 도시 정읍'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유 의장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불굴의 정신으로 26년간 민주당에 헌신해 온 명실상부 민주당의 적통자로서, 상생 경제, 시민 참여, 명품 교육도시 정읍을 건설하겠다." 고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더 좋은 지방정부 위원회'를 발족시켜 각 분야 시민전문가 집단을 참여케 해, 소통, 공약개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간 천만 명의 관광객 및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튼튼한 뼈대를 만들고자 향후 20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유 의장은 "선거 정책 토론회를 토크쇼의 형식으로 열어,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싶다. 민주당 타 예비후보나 타 당 예비후보에게도 정책토론회를 제안하겠다. 정읍에 새로운 정치문화의 물꼬를 트고 싶다."고 밝혀 지역 선거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기억력 검사' 운영 호응

정읍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억력 검사'를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9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태인 북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기억력 검사(MMSE-DS)를 실시했다. 또 검사 결과에 기초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인지저하로 나온 어르신에 대해서는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정읍아산병원, 정읍사랑병원, 정읍시립요양병원, 한서요양병원, 대성의원, 중앙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의뢰, 치매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매안심센터는 관계자는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다수 이용하는 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어디는 찾아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기억력 검사를 받고 싶은 어르신은 언제든지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 가까운 기관을 찾으면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다"며 이용을 당부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우리나라 전체 치매 환자의 57% 이상(전국)이 경증 치매환자이며 중증으로 진행될수록 개인 당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등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따라서 치매는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세계 물의 날 맞아 31일까지 읍면 정화

고창군이 '제26회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고창을 찾는 관광객을 깨끗한 분위기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세계 물의 날 기념 대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읍면 곳곳에서 정화활동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14개 읍면의 내 집·내 점포 앞, 우리 마을 등 겨우내 방치된 묵은 쓰레기와 숨은 쓰레기를 수거해 청정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2일을 '세계 물의 날 기념 일제 대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14개 읍면 전역에서 대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무원, 사회단체, 군부대 등 400여명이 모양성, 전통시장, 터미널 등 총 8개소에 대해 대청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새 봄을 맞아 관광객에게 고창에 대한 청정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며 군민 참여 대청소를 추진하는 만큼 군민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